

2021 GRIT 심화편 정오표 (0811까지)

| 교재 | 페이지 | 이전 내용 | 수정 사항 |
|----------------|------------------------------------|---|--|
| 문제편 7/8 수정 | p.174 [A], [B] 위치 수정 | [A] “신첩은 대장군 호랑의 종손이요, ~ 네 원대로 하여 살펴본 후 국법을 행하리라.” [B] “이전에 호원의 죄를 밝히지 못하온고로 ~ 세상 음행 여자를 징계하리라.” | [A] “신첩은 대장군 호랑의 종손이요, ~ 바라옵건대 성상은 옥석(玉石)을 가리소서 ” [B] “이전에 호원의 죄를 밝히지 못하온고로 ~ 성상은 호씨를 베어 후일 음행녀(淫行女)를 징계하옵소서. ” |
| 문제편 8/11 수정 | p.29 03번 문항의 선지 ① 번 수정 | 03 ① 주변국의 임금을 인한다. | 03 ① 주변국의 임금을 인하 하여 경직성을 완화 한다. |
| 해설편 7/8 수정 | P.33 3번 문제 4번 선지 | 유책하지 않은 행위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책하지 않은 행위라도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는 , 얼마든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답: ②, ⑤ |
| 해설편 7/30 수정 | p. 171 2번 문제 | 답:② | ⑤번 선지 해설: (가)는 '머-니 항구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라고 종결되는데, '들여다보며'를 부사어로 보기 어렵고 서술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가)와 (나) 모두 부사어로 종결하고 있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 해설편 7/30 수정 | p.172 4번 문제 정답 해설 | 정밀한 고요 속에 보름달이 비치고 하얗게 눈이 덮인 장수산의 밤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순수함이 부각되어 무욕의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정신적 공간으로 | 정밀한 고요 속에 보름달이 비치고 하얗게 눈이 덮인 장수산의 밤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순수함이 부각되어 무욕의 세계를 |

| | | | |
|--|--|---|---|
| | | <p>형상화되고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석이 힘들었다면 <보기>의 내용을 따라가면 된다. 이러한 장수산의 고요 속에서 화자는 번뇌를 잊고 시름을 담담히 견디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p> <p>따라서 장수산이 화자의 '외로움'이 투영된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p> <p>'외로움'에 대해 판단이 애매할 수 있는데, 김상훈이 항상 말하듯이 문학은 F→M이다. 일단 '외로움'은 지문에서 FACT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내용 일치로 '외로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만한 부분은 없다. 그렇다면 MEANING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의미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 ↔ not A"의 사고를 해야 한다. 즉 '외로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범주와 그 반대의 범주를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를 이분법적으로 양자택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결국은 장수산의 모습이 긍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인 것이냐를 묻는 문항이 되는 것이다. '외로움'은 부정적인 범주의 표현일 것이므로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된다. 문학에서 객관식 문항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야 60만이 넘는 수험생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 문항이 된다.</p> <p>MEANING은 "A ↔ not A"의 판단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마라.</p> | <p>지향하는 화자의 정신적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석이 힘들었다면 <보기>의 내용을 따라가면 된다. 이러한 장수산의 고요 속에서 화자는 번뇌를 잊고 시름을 담담히 견디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장수산이 화자의 '번뇌'가 투영된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p> <p>'번뇌'에 대해 판단이 애매할 수 있는데, 김상훈이 항상 말하듯이 문학은 F→M이다. 일단 '번뇌'는 지문에서 FACT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내용 일치로 '번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만한 부분은 없다. 그렇다면 MEANING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의미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 ↔ not A"의 사고를 해야 한다. 즉 '번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번뇌'라는 범주와 그 반대의 범주를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를 이분법적으로 양자택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결국은 장수산의 모습이 긍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인 것이냐를 묻는 문항이 되는 것이다. '번뇌'는 부정적인 범주의 표현일 것이므로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된다. 문학에서 객관식 문항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야 60만이 넘는</p> |
|--|--|---|---|

| | | | |
|-----|-------------------------|---|---|
| | | | 수험생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 문항이 된다. MEANING은 “A ↔ not A”의 판단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마라. |
| 해설편 | p.83 5번 문항 정답 해설 | ㉠는 ‘사물의 현상이나 가치’의 뜻을 지닌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다. | ㉠는 ‘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 ’의 뜻을 지닌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다. 여공’은 ‘계월’에 대해 ‘벼슬 놓지 |
| 해설편 | p.142 2번 문제 4번 선지 | 여공’은 ‘계월’에 대해 ‘벼슬 놓지 아니하고 의기가 당당하여 족히 너를 부릴 사람으로되 예로써 너를 섬기니’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청자(=여공)가 불만을 품고 있는 대상(=계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황에 대한 청자의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놓지 아니하고 의기가 당당하여 족히 너를 부릴 사람으로되 예로써 너를 섬기니’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청자(= 보국)가 불만을 품고 있는 대상(=계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황에 대한 청자의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해설편 | p. 47 4번 문항 2번 선지 | 23번 문장, 24번 문장을 통해 평균소비성향(APC)= C/Y 임을 알 수 있다. 우선 [A]는 케인스의 견해를 따르고 있고, 또한 28번 문장에서 ‘Y 의 값이 증가할수록 C/Y 의 값이 작아진다’고 했으므로 [A]는 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 반면 [B]는 <보기>에서는 에 일 정하게 비례한다고 했고, 31번 문장에서 쿨즈네츠는 케인즈의 예측 과 달리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APC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는 불변한다고 볼 것이다. 따 라서 [A]는 [B]와 달리 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 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 24번 문장을 통해 평균소비성향 (APC)= $\frac{C}{Y}$ 임을 알 수 있다. 우선 [A]는 케인스의 견해를 따르고 있고, 26번 문장에서 케인스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APC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 하므로 [A]는 소득 증가에 따 라 평균소비성향(APC)이 감소한다고 볼 것이다. 반면 [B] 는 <보기>에서 C는 Y에 일 정하게 비례한다고 했으므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frac{C}{Y}$ 는 불변한다고 볼 것이다. 따 라서 [A]는 [B]와 달리 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 다. |
| 해설편 | p. 47 4번 문항 5번 선지 | <보기>의 [B]에서 C는 Y에 일정하게 비례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득에 대한 소비의 | <보기>의 [B]에서 C는 Y에 일정하게 비례한다고 했으므로 [B]는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 율이 일정하게 나타날 것이 |

비율이 일정하게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A]는 케인스의 견해를 따른 소비함수이므로 28번 문장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다. 반면 28번 문장에서 케인스는 Y 값이 증가함에 따라 $\frac{C}{Y}$ 가 감소한다고 했으므로, 케인스에 따르면, $\frac{C}{Y}$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가 일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A]는 케인스의 견해를 따르는 소비함수이므로 [A]에서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은 일정하지 않을 것이다.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